

외국인들에 대한 조선말회화교육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안 정 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말은 표현이 풍부하여 복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을 다 나타낼수 있으며 사람들을 격동시킬수 있고 울릴수도 있으며 웃길수도 있다. 또한 우리 말은 레의범절을 똑똑히 나타낼수 있기때문에 사람들의 공산주의도덕교양에도 매우 좋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5권 123페이지)

조선말은 어휘가 풍부할뿐아니라 표현이 섬세하고 다양하며 레의범절을 잘 나타낼수 있는 우수한 말이다.

언어생활에서 사람들의 정보전달과 교류는 많은 경우 입말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언어교육에서는 회화교육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이 글에서는 조선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 대한 조선말회화교육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서술하려고 한다.

외국인들에 대한 조선말회화교육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어조에 의한 물음문장의 의미변화현상이다.

사람들의 언어교제과정에는 같은 말을 가지고도 자기의 사상감정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바로 하나의 문장에 실리는 각이한 어조의 영향이다.

어조는 말소리의 높낮이와 세고 약한것, 빠르고 느린것 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발음요소이다. 어조는 사람들의 교제활동에서 몸짓이나 손짓, 얼굴표정 등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뜻(정보)을 전달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언어표현수단의 하나로 리용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즐겁거나 기쁠 때의 어조는 밝고 명랑하며 흥겹지만 비통하거나 억제하는 감정에 휩싸였을 때의 어조는 침울하고 저조하며 조용하다. 평온할 때의 어조는 느리고 부드러운데 잔잔하지만 분노할 때의 어조는 흐리고 말소리가 빠르며 폭발적이다. 이러한 각이한 감정에 따르는 어조의 변화는 같은 말을 가지고도 완전히 다른 새로운 뜻(정보)을 표현하는데서 큰 작용을 하게 된다.

입말에서 나타나는 문장의미의 각이한 변화는 글말인 경우 대화나 설명으로 해결된다.

실례로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의 한 대목을 보기로 하자.

레; 선생! 오늘은 두분이 다 야학에 나오셔야겠습시다.

조씨; 정말 선생님의 성의를 생각하면...

선생! 아, 요즘은 봉순학생까지 안내보내시는데 오늘은 꼭 아저씨가 데리고 나오십시오.

조씨; 이제 나가지요.

달수; 어텔 나가?

우의 실례에서 물음문장 《어텔 나가?》는 《어디를 나가는가?》의 의미로가 아니라 《못나간다(야학에 나간다는것은 말도 안된다.)》의 의미로 쓰이였다. 그러므로 연극대본을 읽을 때에는 앞의 대화문을 읽어보아야만 그 뜻을 알수 있다.

조선말을 배우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어데를 나가는가?》를 물음문장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일반적현상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실지 연극에서는 폭발적이면서도 빠른 달수의 어조를 통하여 이 문장(말) 하나만으로도 《못 나간다》의 의미가 명백하게 전달된다.

레; 봉순; 아니, 그게 뭐야? 어서 좀 보여줘. 어서!

차돌; 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봉순; 오, 그건 저기 강건너 돌배나무집 둘째딸에게서 온 쪽지편지지?

차돌; 뭐, 편지? 하하하, 잘두 안다.

위의 실례에서 《그건 저기 강건너 돌배나무집 둘째딸에게서 온 쪽지편지지?》의 정보는 둘째딸의 쪽지편지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실지 연극에서 봉순이의 말에는 실망과 유감의 어조가 짙게 깔려있다. 즉 입말로 나타나는 이 문장의 정보는 돌배나무집 둘째딸에게서 온 쪽지편지니 정말 섭섭하고 유감스럽다는 실망의 뜻으로 표현된다.

외국인들에 대한 조선말회화교육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으로 입말의 강조표현방식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이나 견해, 립장이 옳다는것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표현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하고있다.

그중의 하나가 강조표현방식이다.

조선말을 배우는 일부 외국인들속에서는 강조표현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로부터 그것을 옳바로 활용하지 못할뿐아니라 해당 문장이 물음인지 강조인지 혼동하는 현상들이 종종 나타나곤 한다.

입말교제에서 자기의 사상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표현방식을 몇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우선 부사 《얼마나》에 의한 표현방식이다.

레; · 작업반장; 흥, 불합격이야.

호철; 예? 불합격이요?

작업반장; 불합격 아니문.

호철; 왜 불합격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익혀온 노래라구요.

· 해방동이 세쌍둥이를 보셨는데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 넌 얼마나 찾은 줄 아니?

위의 실례에서 《얼마나 익혀온 노래라구요》나 《세쌍둥이를 보셨는데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넌 얼마나 찾은 줄 아니》라는 문장은 부사 《얼마나》에 의하여 《익혀온 노래다》, 《큰 경사이다》, 《찾다》의 의미가 강조되고있다.

또한 부사 《다》와 《왜》, 관형사 《무슨》, 물음대명사 《어디》에 의한 표현방식이다.

부사 《다》는 못마땅히 여기거나 놀람을 강조한다.

레;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위의 실례에서는 부사 《다》에 의해 《공연히, 쓸데없이》라는 뜻으로 강조가 이루어지고있다.

부사 《왜》는 의문스러움을 강조할 때 쓰인다.

레; 왜 아까 다했는데 걱정하니.

내가 하는것을 내라고 왜 못하겠니.

관형사 《무슨》은 반대의 뜻을 강조할 때 쓰인다.

레; 하늘에 별이 총총한데 무슨 비가 온다고 그러니.

무슨 말대답질이나?

물음대명사 《어디》는 부르거나 다짐 또는 딱한 사정을 강조할 때 쓰인다.

레; 어디 오기만 해봐라.

이거야 어디 보여야 쓰지.

이거야 어디 더워서 견디겠니.

또한 《-다뿐이겠는가(겠습니까)》, 《-지 앓구(요)》, 《-다마다(요)》, 《-고 말구(요)》, 《-ㄴ 단 말이다》 등에 의한 표현방식이다.

레; 마식령스키장이 대단히 훌륭하다(훌륭합니다).

마식령스키장이 훌륭하다뿐이겠는가(훌륭하다뿐이겠습니까).

마식령스키장이 훌륭하다마다(요).

마식령스키장이 훌륭하지 앓구(요).

마식령스키장이 훌륭하구말구(요).

마식령스키장이 훌륭하단 말이다(하단 말입니다).

또한 일정한 물음문장에 의한 표현방식이다.

이때 물음문장은 반대의 의미로 강조를 나타낸다.

레; 노래가 없이야 청춘이 있니? -청춘이 없다.

조선말에서 강조를 나타내는 이러한 방식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외국인들에 대한 조선말회화교육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으로 시킴과 관련한 조선말의 몇가지 레의표현형식이다.

레의는 사람들호상간의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며 화목과 단합을 이룩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며 특히 교제의 성과를 달성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조선말은 각이한 대상들에 대한 레의를 명백히 표현할수 있는 우수한 언어이다.

시킴과 관련된 말도 대상과 환경에 따라 각이하게 표현할수 있다.

시킴문장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시키거나 요구하는 문장으로서 기본은 명령의 뜻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한 레의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존경의 뜻빛갈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로부터 입말교제에서 시킴을 나타내는 경우 문장을 구사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문장구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선 시킴을 추김문장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조선말에서는 사람들호상간의 교제에서 남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 남을 낮게 대하는 시킴이 아니라 추김의 문장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레의를 충분히 나타내면서도 시킴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한다.

추김문장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야기듣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자기와 함께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이다.

시킴형식을 추김형식으로 표현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를 상대방보다 높은 급이 아

니라 동급으로 놓고 권하는 뜻으로 교제를 실현함으로써 겸손하게 레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히시다》를 리용한 방법

레; 자, 이젠 떠나시오./자, 이젠 떠납시다.

길을 줌 내시오./길을 줌 냅시다.

자리를 줌 조이시오./자리를 줌 조입시다.

《아/어/여 보다》를 리용한 방법

레; 운전수동무, 이젠 떠나십시오./운전수동무, 떠나봅시다.

이젠 일을 시작하십시오./이젠 일을 시작해봅시다.

또한 시킴을 《-르수 없는가/있는가》의 가능성과 관련된 물음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레; 운전수동무, 이젠 떠나십시오./운전수동무, 떠날수 없습니까?(떠날수 있습니까?)

길을 알려주십시오./알려줄수 없습니까?(길을 알려줄수 있습니까?)

시계를 줌 봐주십시오./시계를 봐줄수 없습니까?(있습니까?)

시킴을 가능성과 관련된 물음의 형식으로 표현하는것은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는것으로서 그의 의사를 존중하게 된다.

또한 시킴을 《-면 하다》희망이나 념원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희망이나 념원의 형식으로 시킴을 표현하는것은 자기가 바라는것을 상대방에게 언지 시 알려주는것이 직접 시킴으로 표현하는것보다 어느모로 보아도 레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레; 운전수동무, 이젠 떠나십시오./운전수동무, 떠났으면 합니다.

시계를 수리해주시오./시계를 수리해주었으면 합니다.

길을 알려주십시오./길을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시킴을 상대방의 의도를 물어보는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상대방의 의도로 시킴을 표현하는것은 지시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그에 대한 존경을 표시한다.

레; 운전수동무, 이젠 떠나십시오./운전수동무, 이젠 떠나는게 어떻습니까?(의도)

김동무를 도와주십시오./김동무를 도와주는게 어떻습니까?

길을 내십시오./길을 내는게 어떻습니까?

이처럼 조선말의 시킴과 관련된 레의관계는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문장으로 에둘러 표현할 수 있다.

이밖에도 상대방에 대한 레의관계표현형식은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어휘가 풍부하고 표현이 섬세하고 다양할뿐아니라 레의법절도 잘 나타낼 수 있는 훌륭한 우리 말의 특성을 여러 측면에서 찾아내어 교육활동에 적극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